

지역 매아리

김종규 부안군수 후보

“부안경제 살리기에 주력할것”

“부안경제 살리기에 주력할것” 부안읍 공동화 현상



김종규 부안군수 후보는 최근 부안군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 간담회와 격포자활방범대 월례회의 현장을 순방 유권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종규 후보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체감도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며 “1년 이상 근무 중인 영유아 보육시설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장기 근속수당을 확대하고 급식조리사와 차량 운전원 등 보육 도우미들의 급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 김종규후보 격포방범대 월례회에서 “격포항을 대한민국 3대 미항으로 가꾸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부안에 숙박시설은 잘 조성, 즐길 거리가 부족해 격포항 개발사업이 완공되고 인근 지역에 골프장이 유치되면 변산해수욕장과 더불어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레저스포츠의 명소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상곤 부안군수 후보

“부안의 소리를 듣다”

김상곤 부안군수 후보가 28일 첫배를 타고 위도면을 방문, 주민의 소리를 듣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고 발전계획을 제시했다.



김상곤 부안군수 후보는 “건강관리시스템 확충과 취약한 의료장비 및 약품구입에 최우선으로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민들의 고통 중 하나인 “교통” 문제라 하며 섬의 근본적인 관광과 관련하여 버스는 물론 가장 중요한 여객선 개선 문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상곤후보는 교통을 원활히 하고 위도 관광객 유입을 위해 페리호를 마련하여 “전북도민은 여객선 운임 50%할인, 위도주민은 1,000원으로 교통운임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상곤후보는 교통을 원활히 하고 위도 관광객 유입을 위해 페리호를 마련하여 “전북도민은 여객선 운임 50%할인, 위도주민은 1,000원으로 교통운임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상곤후보는 교통을 원활히 하고 위도 관광객 유입을 위해 페리호를 마련하여 “전북도민은 여객선 운임 50%할인, 위도주민은 1,000원으로 교통운임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

‘청소년 분야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권익현 부안군수 후보는 29일 “청소년에게 힘이 되는 부안, 청소년으로 다시 서는 새로운 부안을 만들겠다”며 청소년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권익현 후보가 이날 발표한 청소년 관련 분야 공약은 ▲중·고등학생 교복 무상지원 ▲고등학생 저녁 무상제공 ▲청소년 문화 놀이터 ‘나래센터’ 조성 ▲청소년 비전카드 발급 등으로서 선택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또 ▲글로벌 코치 지원 확대 ▲학교 밖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4차혁명을 대비하는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모든 청소년은 우리의 청소년일 뿐더러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학교나 교육청 등 교육당국에만 지원을 맡기기에선 부족함이 크다”며 “지자체가 나서서 적극 교육에 지원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자연생태도시로 오세요

군, 자매도시 지역주민 주요명소 특별할인... 7월부터 9월까지

고창군이 자매도시 지역주민에게 주요 명소에 대한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은 고창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사업을 성공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전국 6개 자매도시간 호혜적 상생발전과 민간부문으로까지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고창군은 자매도시인 서울 관악구, 성북구, 송파구, 부산 동래구, 경북 상주시, 경북 고령군의 전 지역주민에게 여름휴가철인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고창군의 주요 명소에 대한 입장료, 숙박비, 체험비 등 할인혜택을 제

공하여 자매도시 지역주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할인대상(할인율)은 ▲역사·문화 유적인 고창읍성(모양성), 선운산도립공원, 고인돌박물관 입장료, 주차료 무료(고창군민과 동일) ▲주요관광지인 석정 힐링카운티(숙박), 석정온천(목욕), 석정온천 휴스파(물놀이 시설)는 할인을 30%(연중) ▲갯벌체험비(만들, 하전, 장호)는 어른 1만2000원~8000원, 청소년 8000원~6000원, 영유아 6000원~5000원으로 체험비를 할인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주요명소 할인을 받기 위해 자매도시 주민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 동반 시 할인이 가능하다. 군 기획예산실 김이종 실장은 “자매도시 교류가 문화축제 상호방문 수준에서 민간부문까지 확대 될 수 있도록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주요관광지 할인혜택 등과 같은 행정·문화·경제·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물적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 해 나감으로써 자매도시 간 호혜적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해커톤 개최

정읍시-LH전북본부,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접수

6월 22일~ 23일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 정읍시립박물관서

정읍시와 LH전북지역본부가 도시재생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해커톤(Hackathon)을 갖는다. 시에 따르면 해커톤은 내달 22일부터 23일까지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과 정읍시립박물관에서 열린다. 양 기관에 공동주관하고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최하는 이번 해커톤은 대학생과 청년들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이다. 한 장소에 모여 마라톤을 하듯 장시간 동안 쉬

지 않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긴 시간 동안 아이디어 창출과 기획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행사이다. 이번 해커톤 참석자들은 조별로 원도심 현장투어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기초 조사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전략(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직접 실행 해보고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커톤에는 전주 대학생 이상 청년(만 30세 이하)들이 참여할 수 있다. 희망자는 정읍시나 전북과학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은 후 이메일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진행된다. 총 200여만원의 상금이 마련돼 있는데, 현장에서 5개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팀에는 등급에 따라 소정의 상금의 주머니며 청년창업 챌린지 슝 참여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과 관련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상호 간 소통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며 “다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의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립박물관 특별기획전 ‘쌍화路 通하다’

7월 29일까지 쌍화차 거리 등 100여점 전시

정읍을 대표하는 아홉 곳의 명소(정읍 九景) 중 하나이자 도심 속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쌍화차 거리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정읍시립박물관이 제11회 기획특별전으로 마련한 ‘쌍화路 通하다’가 29일 개막돼 7월 29일까지 정읍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이어진다. 이번 전시는 쌍화차 거리의 독특한 역사성과 문화성을 조명하는 자리다. 전시회에서는 쌍화차 거리의 현재와 쌍화차의 역사와 깊은 맛, 그리고 쌍화차를 만드는 사람들과 찾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또 쌍화차(탕), 응동 지황 등 전통음식문화의 가치도 재조명한다. 전통 찻집 분위기와 옛날 식 다방 분위기를 자아내는 공간도 마련돼 있고, 영삼물 6편을 상영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한다. 더불어 고대 차 도구로 알려진 초두(?斗)와 천계호(天鵝壺) 만들기, 쌍화차 시음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쌍화차거리는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됐다. 30년을 훌쩍 넘긴 쌍화탕 찻집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찻집이 어우러진 정경은 소박하고 편안해, 정읍을 찾은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다. 쌍화차 거리는 정읍경찰서에서 정읍세무서까지 이어지는 길목이다. 종인길 350여m에 이르는 길

가 양쪽에 모두 14개소의 전통찻집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외 지역까지 아우르면 정읍에는 모두 25개소에 달한다. 쌍화차 거리의 쌍화차 거리는 어느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독특한 맛을 자랑한다. 다양하고 넉넉한 한약 재료에 발과 대추, 은행, 견과류를 넣어 10시간 이상 푹 고아 진하다. 특히 골목로 된 쪽배기에 담아 오래도록 온도를 유지해 차의 맛을 더한다. 시립박물관 관계자는 “찻집 저마다의 독특한 맛과 분위기를 소개하는데 주력했다”며 “전시장에 들러 차를 마시고 대화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연출에 세심하게 신경 썼다”며 많은 이들의 관람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정읍발전 위해 힘껏 뛰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당내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고도 공천에서 배제됐던 이학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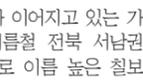


29일, 정읍시청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진행한 이 후보는 “그간 뼈를 깎는 투쟁의 시간을 보내왔다. 이제 오히려 다시 일어나 정읍발전을 위해 힘껏 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과

정은 공정하지 못했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시민여러분께서 정의가 무너져버린 잘못된 결과를 바로 잡아주시길”을 확인했다. 아울러, “저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 것은 시민 여러분의 위로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밝히며,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약속을 지켜내고, 끝까지 시민과 손잡고 함께 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 후보의 선거대책 위원회는 ‘시민캠프’로 이름 짓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며, 오는 31일(오후 2시) 선거사무소(성림프라자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칠보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 개장 준비 만전

때 이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여름철 전북 서남권 대표 물놀이 명소로 이름 높은 칠보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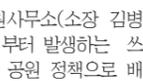


29일 정읍시에 따르면 물놀이장은 7월 7일과 8일 주말 개장을 거쳐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운영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시설 점검과 보완 등 막바지 점검에 심혈을 쏟고 있다. 그날막 시설 내에 데크시설을 설치했고, 안전사고 방지와 이용 편의를 위해 수영장 바다 전면에 대한 방수 작업도 마쳤다. 지난해에는 어린이조합 놀이시설 기구를 설치한 바 있다.

칠보물테마유원지는 태산선비문화의 중심인 칠보면 무성리의 무성서원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모두 5만2,487㎡ 규모로 인공폭포와 미끄럼시설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춘 물놀이장외에도 물테마체험전시관과 야생화 관찰원, 수상식물원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물테마 체험 전시관에 물레방아와 수차 등 물을 이용한 시설과 수력 발전 시설 미니언처는 물론 물의 기원 등 물 관련 자료도 전시하고 있는데, 인근에서는 동진강 일대 생태도 체험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쓰레기 저감 정책 홍보 캠페인 주력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재)는 탐방객으로부터 발생하는 쓰레기 저감을 위한 공영 정책으로 배낭무게 줄이기(그린포인트 제도) 홍보 캠페인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는 산행 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꼭 필요한 짐만 싸기로 일회용 용기 사용하지 않기, 음식 및 과일류는 가정용 용기에 담아 준비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음식은 행동식(김밥, 초코바, 견과류, 오이 등 산행시 조리하지 않

고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이용하기, 출발 전 포장재 제거 및 과일 다듬기와 쓰레기, 잔반은 소지한 봉투 및 용기에 가져오기, 흔적은 안 남기고 추억만 남기고 돌아오기로 쓰레기 저감 정책에 동참하여 공영지원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 유종섭 자원보전과장은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으로 공원 내 쓰레기 저감과 탐방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군 미취업자 취업, 창업 교육생 모집

주요 교육내용

- ▶ 참봉 활용 신 요리 실습, 제과·제빵 실습
- ▶ 오디오와인, 오디오음료 실습
- ▶ 사회적 경제 및 식품위생 교육
- ▶ 산업체 탐방 및 취업연계

모집대상 위, 창업을 희망하는 부안군민 (경력단절여성, 청년구직자 우대)

모집기간 2018. 5. 14(월) ~ 6. 29(금)

신청방법 전화 및 이메일 접수
T 063-280-5238
E suyong2@kijeon.ac.kr
(신청서 제출 : www.kijeon.ac.kr 접속 후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모집인원 15명

교육기간 2018. 7. 2(월) ~ 8. 6(월) (120시간)

교육비용 전액지원(식비포함)

교육장소 부안군 노인여성회관

교육지원 참여자 교육비 전액무료 (훈련수당 월 최대 식비포함 30만원 지급)

부안 참봉 산업 활성화와 부안군민의 취업을 위해 전주기전대학과 부안군이 함께합니다.

사업설명회 장소 : 부안군청 5층 중회의실

1차 2018. 6. 7(목) [오후 2시] 2차 2018. 6. 21(목) [오후 2시]

“사업설명회 참석인원 선착순 20명 기념품 증정”

문의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 T 063-280-5238 이메일 suyong2@kijeon.ac.kr